

# 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에 관한 고찰\*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김 상 진\*\*

## <국문초록>

시조는 우리나라 문학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장르이다. 이 논문은 그러한 시조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문학과 치료는, 전자는 인간의 정서의 표현물이고 후자는 의학에 관한 것으로 그 타협점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갈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러한 문학치료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것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이 지니고 있는 효용적 가치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시조 가운데 16·17세기의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난 문학치료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16·17세기의 강호시조는 사림과 문인들에 의하여 창작된 시조 작품들이다. 이 시기의 사림과 문인들은 사회와 당쟁으로 말미암아 관직에서 물러나 자주 강호에 머물러야 했다. 따라서 강호시조에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은거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화자의 심경을 노래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심리를 문학 치료와의 관계에서 셋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불안과 우울의 정서, 둘째 안정과 조화의 추구, 셋째 무심과 평온의 구가가 그것이다.

또한 이상의 세 단계는 각각의 문학치료 효과를 거두게 된다. 첫 단계는 정화이론에 근거한 것으로써 일명 동류요법이다. 이는 이열치열과 같은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일명 이열치열의 원리이다. 다음 단계는 조정이론에 근거한다. 감정을 적당하게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43-A00064).

\*\* 한양대

마지막 단계는 명징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감정을 명료하게 나타냄으로써 문학 치료를 얻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문학치료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단계이면서도 동시에 그 자체로 문학치료로 기능하게 된다.

문학치료의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다. 그런 만큼 아직은 많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은 영역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향후 문학 치료의 연구에 한 몫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문학치료, 시조, 갈등의 완화, 16·17세기, 강호시조, 불안과 우울, 안정과 조화, 평온과 무심, 정화이론, 동류요법, 조정이론, 명징이론

## 1. 문학치료와 16·17세기 강호시조

16·17세기 강호시조의 담당층인 사림과 문인들은 사회와 당쟁으로 말미암아 환로를 떠나 자주 강호에 머물러야 했다. 16·17세기는 사림과 문인들이 득세하며 성리학적 사고가 시대의 이념이 되던 시기였지만, 이들의 환로가 결코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사림과 문인들에게 있어서 16세기가 도학파와의 정쟁 속에서 정치적 도전기였다면, 17세기는 사림 내부의 분파인 봉당정치기에 해당되고<sup>1)</sup> 그들은 출처(出處)를 거듭하게 되었다.

세상에 나가서 겸선천하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호에 은거하며 수신(修身)하는 것 또한 도의 실현으로 보았지만<sup>2)</sup>, 그렇다고 해서 갈등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강호에서 생활하며 갈등하게 되는 원인은 대략

1) 이상원, 『17세기 시가사의 구도』, 월인, 2000, pp.19-33.

2) 이들은 『맹자(孟子)』(진심장구(盡心章句))에 나오는 '궁즉독선기신(窮則獨善其身) 달즉겸선천하(達則兼善天下)'하는 유교적 출처관에 근거하여 반드시 세상에 나가지 않더라도 강호에 머물며 독선기신하며 성정(性情)을 기리는 것 또한 도(道)의 실현으로 보았다. 결국 강호시조는 사림과 문인들이 강호에 머물며 시조로써 그들의 성정을 기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상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세상에 나아가 겸선하고자 하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강호에 머물게 되는 경우이고 스스로는 강호에서의 삶에 만족하지만 그것이 사대부로서 마땅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언젠가는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이 그것이다. 즉 전자가 자신의 욕망을 억압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면, 후자는 회피하고 싶은 상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갈등의 원인은 다르지만 이러한 심리상태는 궁극적으로 화자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게 된다. 자신이 출사에 뜻을 두던 그렇지 않던 간에 조 선조를 살아가는 사대부 문인으로서 출사에 대해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즉 은거의 이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그들은 갈등으로 말미암아 정서적 불안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것을 해소하여 평상심을 회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림과 문인들의 시조 창작이 일차적으로 그들의 성정을 기리며 재도(載道) 문학으로서의 기능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강호에 머물며 출처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에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줌으로써 문학 치료<sup>3)</sup>의 기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의 치료 효과에 대한 언급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지만 문학이 지니고 있는 심리 치료의 가능성은 문학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문학의 심미적 기능이 원시시대의 종교적 기능을 대신한다고 할 때<sup>4)</sup>,

3) 문학치료란 문학 텍스트를 이용하여 인간의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최근 심리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문학치료도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에서 이미 설명된 것인 만큼 본고에서 또 다른 개념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변학수의 일련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문학치료와 문학적 경험」(『독일어문학』 10, 한국독일어문학회, 1999), 「치료로서의 문학-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독일어문학』 17, 한국독일어문학회, 2002)의 논문과 단행본으로 출간된 『문학치료』(학지사, 2005)와 『통합적 문학치료』(학지사, 2006) 등이 있다.

문학은 본래적으로 치유 기능을 지니게 된다. 즉 문학이 추구하는 두 가지 효용인 쾌락과 교훈은 인간의 정서에 긍정적인 가치를 발휘하여 치료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문학치료의 효과는 우리 고전 문학에서도 종종 그 예를 찾을 수 있다.<sup>5)</sup> 그 가운데서도 특히 시조나 시[漢詩]의 효용에 대한 언급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퇴계의 <도산십이곡발>이다. <도산십이곡발>에서 문학치료와 관련된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가로이 살면서 병을 수양하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 감동이 있는 것을 매 양 시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 달라 가히 읊기는 하되 노래하지는 못한다. (중략) 아이들로 하여금 조석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하고, 안석에 기대어 듣기도 하고 또한 아이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기도 하니 비루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감발하며 화창하여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하략).”<sup>6)</sup>

이처럼 퇴계는 시의 효용과 함께 특히 시조가 심신을 수양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적어 있다. 정래교의 <청구영언서>에서도 시조가 마음을 다스리는데 유용한 도구임을 밝혀놓았다.<sup>7)</sup> 실제로도 시조는 다른 어떤

4) 변학수, 『문학치료』, 학지사, 2005, p.351.

5) 정윤채, 「고전시가론에 대한 문학치료적 조명」, 『한국시가연구』 10집, 한국고전시가학회, 2002, p.333)에서는 『한국고전비평자료집』(계명문화사, 1988)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문학치료학과 직접 관련지을 수 있는 자료가 47건 발견된다고 하였다.

6) 『退溪集』 권43, <陶山十二曲跋> : ...閑居養疾而餘 几有感於性情者每發於詩 (中略) 欲使我輩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 庶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通 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有益焉”.

7) 정래교는 <청구영언서>에서 “아아, 무릇 이 노랫말을 지은 것은 오직 그 생각을 말하고 그 우울함을 펴는 데 그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보아 느끼어 흥취하게 하는 것을 또한 그 가운데 붙인 것이니, 樂府에 올려서 향인에게 사용하면 匪한 풍화의 일조가 될 것이다 (중략) 내가 일찍이 침울하고 시름겨움으로 병이 있어서 마음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이 없더니, 履叔이 반드시 김악

문학 장르보다 치료 효과가 클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 문학 치료에 적절한 장르가 시라고 한다. 왜냐하면 시는 능동적이며 감성적인 치료 장르이기 때문이다. 시는 감성적 접근과 신화적, 마법적 특성을 지님으로써 다른 장르보다 정서를 표출하는데 보다 유용한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sup>8)</sup> 이것은 시가 지니고 있는 은유와 상징, 리듬, 반복 기법 등으로 말미암는다.<sup>9)</sup>

그런데 시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치료적 효과는 시조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3장 6구의 정형의 틀을 지니고 있는 시조는 반드시 창곡에 맞추어 부르지 않더라도 일정한 율독법에 의해 낭송하게 된다. 이로써 관습적 기대와 실현으로 율격의 미적 쾌감을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쾌감은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sup>10)</sup> 요컨대 시조는 문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보상적 기능, 정서의 순화, 동일시의 효과, 대리 만족 등의 요소를 모두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은유와 상징, 리듬의 반복 등을 통하여 시가 지니고 있는 치료적 효과와 함께 시조만의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유용한 텍스트가 되고 있다.

시조가 지니는 이러한 효과를 염두에 둘 때, 16·17세기 사립파 문인

---

사와 함께 와서는 이 노랫말들을 가지고 노래하여 나로 하여금 한 번 듣고 그 울적함을 풀 수 있게 하였다 嗚呼 凡爲是詞者 非惟述其思 宣其鬱而止爾 所以使人觀感 而興起者 亦寓於其中 則登諸樂府 用之鄉人 亦是爲風化之一助矣 (中略) 余嘗幽憂有疾 無可娛懷者 履叔其必與金樂士來 取此詞歌之 使我一聽而得洩其溼鬱也”고 하여 노래를 듣고 마음의 병을 고쳤다고 적고 있다. 그 밖에 이현보의 〈어부가구장병서〉, 권호문의 〈독락팔곡병서〉 등에서도 노래가 마음속의 더러운 찌꺼기를 없애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운채, 위의 논문, pp.333-338 참조.

8) 변학수, 앞의 책, p.119.

9) 더욱이 그것을 창작한다고 하는 것은 글쓰기의 치료 효과까지 거두게 되는 장점이 있다.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을 글로 쓰게 되면 감정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더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위의 책, pp.220-235).

10) Nicholas Mazza(김현희 외 공역), 『시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p.38.

들이 출처의 갈등을 시조로 나타내는 것은 우선 시조를 창작한다는 그 자체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심리적 갈등은 화자를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것은 종종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시조를 창작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고 또 이것이 정화작용을 하며 어떤 후련함을 느끼게 하여 고통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도 한다.

문학은 기본적으로 카타르시스를 전제한다. 즉 심리적인 부조화 상태에서 야기되는 갈등의 상황을 문학 작품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다. 16·17세기 강호시조는 사대부 문인들이 머물러 있는 시기에 지은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시조를 창작하는 것은 이러한 시작(詩作)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진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6·17세기 강호시조를 대상으로 출처를 놓고 야기되는 심리적 상황을 시적 화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의 과정을 검토하여, 시조가 지니고 있는 문학 치료적 기능을 천착하기로 한다.<sup>11)</sup>

## 2. 화자의 태도와 심리

### 1) 불안과 우울의 정서

---

11) 우리 문학에서 문학 치료에 대한 관심은 대략 1999년경부터 시작되었다. 정운채의 「사회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 치료학을 위한 전망」(『고전 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은 이 방면의 연구에 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치료의 중요한 영역으로 감상치료와 창작치료를 분류하고, 문학은 치료를 위한 약품 구실을 한다고 하여 문학치료학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강호시조에서 볼 수 있는 화자의 첫 번째 모습은 불안과 우울의 정서이다. 강호시조의 배태가 '머물러 있는 세상에서의 감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대부로서 의당 출처의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갈등은 곧 불안 및 우울의 정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갈등의 상황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 것으로 송암 권호문(松巖 權好文, 1532-1587)의 <한거십팔곡>을 들 수 있다.

- ① 江湖에 노자하니 聖主를 버리레고  
 聖主를 섬기자하니 所樂에 어기에라  
 호은자 岐路에 서서 갈디몰라 호노라(閑居十八曲, 제4연)<sup>12)</sup>

<한거십팔곡>의 제 4연이다. 작품 ①의 화자는 강호와 성주로 지칭되는 처(處)와 출(出)의 공간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하게 된다. 권호문은 처사문인의 성향이 강한 탓에 특별한 정치적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도 강호의 삶을 동경하였다. 다만 그가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모부인에 대한 효성심 때문이다. 말하지만 책무와 본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다. '강호/성주' '성주/소락'의 대립은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을 첨예하게 드러낸다. 이것은 '노자하니/버리레고' '섬기자하니/어기에라'란 서술어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된다. 화자가 출처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음은 무엇보다도 중장의 '기로'를 통해서 입증된다. 이쪽도 저쪽도 향하지 못하고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과 심리적 상황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즉 출

12) 논의에 필요한 시조는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에서 인용한다. 이하 같음.

13) <한거십팔곡>의 4연에서 보이던 이러한 갈등은 6연과 7연에서 더욱 구체화된다. 즉 4연 초장의 갈등은 <한거십팔곡>의 제 6연에서 '허려허려하디 이 뜰 못 허여라 / 이 뜰하면 至樂이 있느니라 / 우울다 잊그제 아니던 일을 누 울타하던고' 하는 강호를 향한 지향으로 이어지고, 중장의 상황은 '말리말리하디 이

처의 갈림길에 서서 갈등하며 불안해하는 화자의 정서를 노래한다.

② 瑤空에 돌 불거늘 一張琴을 빗기 안고  
欄干에 디혀 안자 古陽春을 툇운마리  
엇더타 님향훈 시름이 曲調마다 나느니.(江湖戀君歌, 제1연)

③ 어화 설운지고 太平은 언제러니  
님굼은 엇지흐며 노친은 엇지흐리  
차라리 자는 닷시 죽어서 아무란 줄 모로리라.(述懷歌, 제1연)

작품 ②는 사촌 장경세(沙邨 張經世, 1547-1615)의 <강호연군가> 제 1연이며, ③은 낙애 정광천(洛涯 鄭光天, 1553-1594)의 <술회가> 제 4 연이다.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불안을 넘어 우울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퇴계의 문하에 있던 장경세는 <도산십이곡>을 효방하여 <강호연군가> 12수를 제작하였다.<sup>14)</sup> 구성 또한 <도산십이곡>의 체제를 그대로 본떠 전육곡과 후육곡으로 나누어 전육곡에서는 애군우국지성(愛君憂國之誠)을, 후육곡에서는 성현학문지정(聖賢學問之正)을 노래하였다. 장경세는 평생 학문하기를 좋아했으나 출사는 매우 늦어 40대에 급제하여 50대 중반이 돼서야 현령을 지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온화한 성품을 지녔으며, 곤궁한 가운데도 학문에 침잠하며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사람됨이 혼열(昏劣)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한다. 이러한 상반된 평가는, 욕심이 없이 한 마음으로 성리학에 정진하는 그의 삶의 태도가 한 인간으로서 담백한 것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up>15)</sup>

---

일 어렵다 / 이 일 말면 一身이 閑暇하다 / 어지게 엇그제 흐던 일을 다 원줄  
알과라라고 한 7연의 상황으로 구체화된다. <한거십팔곡>의 제 6연과 7연의  
구조에 관한 것은 김상진,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pp.133-144 참조.

14) 『張沙邨遺集』 권2 : 效退溪先生 陶山六曲 作江湖戀君歌.



장경세의 이러한 성향은 ②에도 드러난다. 연군을 노래한 <강호연군가>의 제 1연에서 강호에 머물며 군주를 향한 연모의 정을 노래한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달 밝은 밤, 강호에 머물며 풍악을 즐기는 정취를 노래한다. 하지만 화자의 마음은 결코 즐겁지 않다. 몸은 강호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은 입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며 홀로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심경은 '시름'이라는 어휘로 집약되어 그가 처한 상황이 마음의 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정광천은 한강 정구(寒岡 鄭述, 1543-1620)의 문하에서 수학하며 평생 『소학』의 가르침을 따랐던 인물로,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sup>16)</sup> <술회가>는 그가 전쟁(임란)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가정의 질서가 파괴됨을 안타까워하며 지은 여섯 수의 연시조이다. 여타의 경우, 갈등의 이유가 정치적인데 있는 것과는 달리 <술회가>는 전쟁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이 갈등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다소 이채를 띤다. 이유야 다르지만 충효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갈등이 비롯된다는 점은 ③ 또한 동일하다. 『소학』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작자였던 만큼 충효를 향한 마음 또한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여의치 못하니 괴롭기만 하다. 현실에서 느끼는 괴로운 심사는 죽음도 불사할만 하니 그 고통의 깊이를 짐작할 만하다.

한편 ①의 화자의 갈등 이유가 출처의 선택을 두고 빗어지는 것이라면 ②와 ③은 화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의 심리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①의 화자가 단지 불안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에 반해 ②와 ③의 화자는 우울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만큼 상황의 심각성은 좀더 심화된 것으로

15) 임기중, 「장경세론」, 『숙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pp.152-153.

16) 최재남, 『사림의 향촌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p.309-318.

볼 수 있다.

## 2) 안정과 조화의 추구

강호시조에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은 그곳 삶에서 안정과 조화의 추구이다. 자신의 욕망과 현실적인 상황의 불일치 속에서 갈등하던 화자는 그러한 심리적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고 은거의 삶에서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불안과 우울의 정서로 괴로워하는 일련의 작품에서와는 달리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하고자 조화로움을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거기서 찾아오는 즐거움도 노래하게 된다.

④ 이런들 엇더흐며 더런들 엇더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터 므슴흐료(陶山十二曲, 제1연)

⑤ 煙霞로 지불 삼고 風月로 버들 사마  
太平聖代에 病으로 늘거가뇌  
이듬에 ㅅ라는 이른 허므리나 업고자(陶山十二曲, 제2연)

〈도산십이곡〉의 처음 두 작품이다. ④에서 화자는 강호를 선택한 자신을 긍정한다. ‘이런들 엇더흐며/더런들 엇더흐료’라는 초장의 모습은 이전의 상황에서는 출처를 두고 갈등했음을 은연중에 나타낸다. 하지만 이제 화자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다. 강호를 선택한 화자는 그 속에서 삶을 지향한다. 초장에서 화자는 스스로를 ‘초야우생’이라고 표현하고 또 자신이 강호에 경도된 지경을 ‘천석고황’으로 표현한다. 스스로를 어리석다고 하여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과는 달리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은 고질병이라고 하여 그 지극함을 노래하였다.

강호를 선택한 자신의 마음을 좀더 다지기 위해 화자는 초·중·종장의 끝구를 설의법으로 표현한다. 이는 청자를 향해 자신의 결의를 알림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좀더 견고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의 즐거움을 느끼지는 못한다. 초장에서 화자는 아무런 전제 없이 다만 이런들, 저런들 '엇더호료'라며 자문한다. 중장은 초야우생이란 그 행동의 주체가 등장하지만, '엇더호료'의 주체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중장에 이르러 비로소 확연해 진다. 중장에서 화자는 천석고황을 고쳐 무엇 하겠냐며 강호에서의 삶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초·중장에서 말하는 '엇더호료'의 주체는 화자가 위치한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의 삶,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나가지 않고 처하여 강호에 머물러 있는 자신의 삶이 모습이 된다.

이렇듯 세상에 나가지 않고 강호에 머물고 있는 자신을 강조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비록 강호를 선택했지만 아직 그 깊은 지경에 다다르지 못했음을 역설적으로 알 수 있다. 화자의 이러한 모습은 <도산십이곡>의 제 2연인 ⑤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⑤는 인간 거지(居士)의 개념을 상징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이 거처할 곳으로 연하를, 자신의 벗으로 풍월을 꼽는다. 그렇지만 연하와 풍월은 그 의미로 볼 때는 모두 자연을 일컫는 말로 서로 동의어가 된다. 화자는 초장에서 강호를 선택하여 살고자 하는 자신의 바람을 노래한다. 자연으로 집을 삼고, 자연으로 벗을 삼는 삶은 가히 '태평성대'라 이름만 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런 태평성대에 화자는 병으로 늙어간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병은 ④에서 말한 천석고황일 수도 있고, 혹은 노년에 찾아온 심신의 병일 수도 있다. 물론 작품의 맥락에서 볼 때 병은 천석고황이겠지만 설령 후자라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다. 어느 쪽을 지향하든지 강조되는 것은 화자가 강호를 선택하여 그곳에서 허물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다음 작품에서는 은거를 선택한 화자의 모습이 좀더 선명하게 묘사된다.

⑥ 出<sub>호</sub>면 致君澤民 處<sub>호</sub>면 釣月耕雲  
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호몰며 富貴危機 | 라 貧賤居를 호오리라(閑居十八曲, 제8연)

⑥에서는 출처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과 함께 강호를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노래함으로써 갈등을 멈추고 강호를 선택하는 이유를 제시하게 된다. 세상에 나가서의 삶을 화자는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치군택민하는 삶이 곧 사대부적인 명예를 얻는 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삶 못지않게 은처(隱處)의 삶도 화자에겐 매력적이다. 은처에 머물러 수신(修身)하며 자연과 벗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도를 깨닫고자 하는 것도 화자에겐 치군택민 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는 삶이다.

그런데 화자는 중장에서 명철군자는 ‘그럴수록’ 즐긴다고 함으로써 선택의 방향을 설정한다. ⑥에서 보다 중심이 되는 것은 중장이다. 즉 ‘빈천거’를 하겠다는 다짐이다. 화자는 이제 부귀는 위험한 일임을 알았다. 그러나 화자는 아직 빈천을 즐길만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다만 은거를 선택하여 앞으로 그곳에서 그러한 삶을 즐기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안정과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서 위의 세 작품이 자신의 선택에 당위성을 보이는 데 주력하였다면 다음 작품은 실제적으로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심리 그 자체를 담아내고 있다.

⑦ 功名도 니젓노라 富貴도 니젓노라  
世上 煩憂호 일 다 주어 니젓노라  
내 몸을 내 맛자 니즈니 늬이 아니 니즈랴(栗里遺曲, 제2연)

죽소 김광옥(竹所 金光燬, 1580-1656)의 <울리유곡> 가운데 둘째 수이다.<sup>17)</sup> 김광옥의 본관은 안동으로, 김상용·김상헌의 재종질이기도 하다. 36세 때 삭직되어 벼슬을 단념하고 경기도 고양군 행주 울리에서 8년 동안 은거생활을 하게 되는 데, <울리유곡>은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작품으로 보고 있다.<sup>18)</sup>

⑦의 화자는 부귀공명과 함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었다고 함으로써 표면적인 진솔로만 봤을 때는 세상의 초장에서 공명도 잊고 부귀도 잊고, 나아가 자신까지 잊음으로써 세상에 초탈한 듯한 모습을 노래한다. 하지만 ⑦의 화자가 아직 세상의 삶에서 완벽하게 초연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작품 ⑦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진술을 부정 어법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잊었다'는 표현이 모두 다섯 번에 걸쳐 등장하게 된다. 지나칠 정도로 강한 부정의 바탕에는 그것을 향한 열망 또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설령 문면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전 단계에서 부귀공명과 세상의 일에 크게 마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세상에 뜻할 마음을 두었고, 또 현재의 삶에서는 강호를 지향하고 세상을 향한 마음을 단절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현실을 긍정하고 안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7) <울리유곡>이 몇 수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으나, 최근에는 『진본 청구영언』에 의거해 17수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일반적이다(이에 대해서는 김기현, 『김광옥론』, 『속고시조작가론』(앞의 책), pp.192-210).

18) 김기현은 『김광옥론』(앞의 책)에서 그의 생애를 ①성장·수학기(1-27세), ②제1차 仕宦期(27-36세), ③실의·은둔기(36-58세), ④제2차 仕宦期(58-77세)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울리유곡>은 제1차 사환기를 지나 실의·은둔기의 작품으로 보았다. 박연호의 『17세기 강호시조의 한 양상-김광옥 시조를 대상으로』(『한국어문교육』 7,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94.)와 이상원의 『김광옥의 <울리유곡> 연구』(『어문논집』 38, 민족어문학회, 1998, pp.98-99)에서도 이에 동의한다.

### 3) 평온과 무심(無心)의 구가

강호시조에 나타나는 화자의 세 번째 모습은 평온과 무심의 삶을 구가하는 모습이다.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고 불안과 우울의 정서에서 벗어나 강호에서 안정된 삶의 자세를 보여주던 화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곳에서의 삶에 침잠한 모습을 그려낸다. 여기서의 화자는 단지 안정된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그 삶 자체를 즐기고 흥겨워하게 되는 데, 이로써 화자는 일체의 갈등에서 벗어나 평온을 구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⑧ 히히히히 또 히히히히  
이러도 히히 히히 더러도 히히히히  
막일에 히히 히히히니 일일마다 히히 히히로다(山中雜曲, 제41연)<sup>19)</sup>

작품 ⑧은 웃음소리로부터 시작하여 한눈으로 보기에 매우 파격적이다. 김득연의 <산중잡곡> 제 41연인 ⑧은 작품이 거의 웃음소리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히히'하는 웃음소리로 초장을 시작하여 중장, 종장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⑧은 웃음소리의 묘사 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시종일관 웃음을 웃는 상황을 통해 세상 삶에 대한 모든 집착에서 초탈하여 무심의 지경에 이른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sup>20)</sup> 이래

19) 일반적으로 김득연의 <산중잡곡>은 49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76년에 발굴된 『갈봉선생유묵』에 의하면 <산중잡곡>은 모두 53수이며 다만 해독할 수 있는 것이 49수였다. <산중잡곡>이 몇 수로 이루어졌느냐의 문제는 <산중잡곡>이 연작시조로서의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필자는 몇몇 정황을 들어 <산중잡곡>은 총 53수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작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49수라고 보았다(김상진,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연작시조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pp.192-194).

도 웃고 저래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노여워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자에게 출처의 공간은 별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세상에 나아가거나 강호에 머물거나, 그 거처하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강호이고 강호가 곧 세상인 상태, 중요한 것은 바로 화자의 마음이다.

⑧이 단지 웃음소리로 일관하며 초세적(超世的)이기는 하나 다소 추상적이었다면 다음의 작품들에서는 강호에서 은거하는 무심의 삶을 사는 화자의 모습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 ⑨ 추강 불근 둘에 一葉舟 혼자 저어  
 낙대를 썰쳐드니 자는 白鷗 다 놀란다  
 어디서 一聲漁笛은 조차 興을 돕나니(栗里遺曲, 제9연)

⑨는 <울리유곡> 가운데 한 작품으로, 화자는 강호에서의 가을을 한껏 흥겨워한다. 가을 밤, 강가에서 홀로 작은 배를 띄워 저어가지만 외로움 보다는 삶의 흥취가 느껴진다. 이러한 흥취는 달 밝은 가을밤의 분위기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장 및 종장에 등장하는 가어옹의 모습에서 비롯된다. 낚싯대를 떨쳐 들지만 화자의 지향이 고기 잡음에 있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는 종장의 '일성어적'과 함께 '흥'을 함함으로써 강호 자연에서의 흥겨운 삶의 지경을 노래한다.<sup>21)</sup>

20) 최규수는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는 자의식과 현실인식을 보다 역동적으로 표출하는 지점'이라고 파악하였다(『권섭 시조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김득연의 시조는 단순히 '히히'라는 웃음소리만을 반복함으로써 문학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불명확하지만, 이 또한 웃음을 통하여 화자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1) <울리유곡>은 연시조가 아닌 연작시조로 내용에 따라 1)강호가와 풍자가, 2)안빈가와 무상가로 구분하였는데, 위의 작품은 강호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교적 생활이 궁색치 않았던 은거 초기의 작품으로 본다. 현실적인 삶의 여유로움은 화자의 심리적 안정감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는데, 그런 만큼 화자는 평온을

- ⑩ 聖賢이 가신 길히 萬古에 흐가지라  
隱커나 見커나 道ㅣ 언디 다르리  
一도ㅣ오 다르디 아니커니 아므탄들 엇더리(閑居十八曲, 제17연)
- ⑪ 愚夫도 알며흐거니 괴 아니 쉬운가  
聖人도 묻다흐시니 괴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됨에 늙는 주를 몰래라.(陶山十二曲, 제12연)

⑩은 <한거십팔곡>가운데 한 작품이며, ⑪은 <도산십이곡>의 마지막 연이다. 먼저 ⑩에서 화자는 처사로서 살아갈 자신의 삶의 방향에 대하여 노래한다.<sup>22)</sup> 옛 성현이 가신 길은 모두 한 가지로 은현이 다를 수 없으며 성현이 뜻 두는 것은 오직 도(道)의 실현이다. 화자는 초장에서 고금을 막론하고 성현의 길은 하나라는 진술만을 하게 된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그 한가지의 실체를 밝혀놓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도(道)이다. 그런데 그 도를 깨닫는 데는 은현(隱現), 즉 출처가 다르지 않다고 함으로써 출처 곧 처이고 처가 곧 출신 지경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도를 얻음에 은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궁즉독선기신, 달즉겸선천하' 하는 사대부적 삶의 지향을 마음으로 체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출과 처의 경계마저 무너진 듯한 ⑩에서는 은거의 구경적 즐거움에 잠겨 득도의 경지에 이른 화자의 모습을 느껴진다.

⑪의 화자 역시 도를 노래한다. 도에 대하여 화자는, 초장에서는 우부도 알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라고 하더니 중장에서는 성인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고 하여 미궁에 빠뜨린다. 그럼 이렇듯 아이러니한 도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도의 포용과 진수에 관한

---

구가하며 흥겨움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22) 16연은 “行藏有道흐니 브리면 구테 구흐랴 / 山之南 水之北 병들고 늘근 날를 / 뒤라서 懷寶迷邦 흐니 오라 말라 흐느뇨”고 하여 은현(隱現)에도 도가 있으며, 세상의 어지러움에서 벗어나 향리에서 도덕을 간직하고 살겠다는 마음을 다짐한다.



문제로, 요컨대 이 세상에 모든 작용이 도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다.

우부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도의 포용이다. 도의 본체와 작용은 없는 곳이 없어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 모든 일과 사물에는 도가 담겨 있다. 성인도 알기 어렵다고 한 것은 도의 진수이다. 이것은 솔개와 물고기[鳶飛魚躍]의 비유로 파악할 수 있다. 솔개는 양물(陽物)로 하늘로 올라가나 물에는 잠기지 못한다. 반대로 물고기는 음물(陰物)이어서 못에서 뿔 수는 있지만 날지는 못한다. 이는 자연의 묘한 이치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그저 묵묵히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런데 솔개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고, 고기가 반드시 못에서 뛰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서 각각의 자리에 머물러 서로 뒤바뀔 수 없다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물상들은 도 아닌 것이 없는데, 그 분수에 맞게 도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양을 이야기 한다. 그래서 우부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면서 성인도 다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것이다.<sup>23)</sup>

종장에서는 이러한 도의 쉽고 어려움의 시비와 무관하게 도에 침잠하는 모습인데, 이것은 ㉑에서 도를 구하는 데 은현이 따로 없다는 말과 상통될 수 있다. 즉 은과 현이 다르지 않듯 쉽거나 어려운 것 또한 다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즐거움 가운데도 근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는[樂中有憂 憂中有樂] 것과 매 한가지의 이치이다. 이렇듯 도에 침잠하는 것은 곧 강호 자연에 침잠하는 삶이 된

23) 이에 대해 정요일의 「퇴계의 문학론」(『퇴계학연구』 4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0, p.12)에서는 ‘학문을 하는 즐거움 속에서도 성현의 도를 따르기 어려운 데서 생기는 근심과 그러한 근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현의 도를 따르고자 하는 학문의 즐거움이 노래된 것[樂中有憂 憂中有樂]’이란 의미로 파악한다.

다. 왜냐하면 도는 자연을 본받기 때문이다[道法自然].

요컨대 ⑩과 ⑪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대별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경계를 넘어 즐거움에 잠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평온과 무심의 경지를 구가한다. 이상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일체의 갈등도 있는 그대로의 삶을 긍정하며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출처를 두고 갈등하며 불안과 우울로 점철되는 심리와는 매우 다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이다.

### 3. 작품에 나타난 문학치료의 효과

앞서 보았듯이, 16·17세기의 강호시조는 거기에 등장하는 화자의 태도와 심리 변화에 따라 세 단계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는 각각 문학치료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이는 문학이 지니고 있는 카타르시스의 효과에 기초한다.

불안과 우울의 정서를 노래한 첫째 단계에서, 출처의 갈등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강호에 머물러 있는 현실과 사대부로서 충효를 실현해야 한다는 이상의 괴리에서 빚어지는 갈등이다. 작품 ①과 ②, ③에 등장하는 화자의 현실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어서, ①의 〈한거십팔곡〉과 ②와 ③의 〈강호연군가〉 및 〈술회가〉에서 화자의 태도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 즉 ①에서는 강호가 이상적 공간이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 ②와 ③에서는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상이고 강호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갈등이 야기되는 이유는 다르지만 화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일치된다. 즉 자신이 처한 상황

을 직면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맛보게 되는 것인데, 이는 정화이론<sup>24)</sup>에 근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거두게 되는 문학치료적 효과는 일종의 '동류요법'이다. 이는 이열치열과 같은 것으로, 갈등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그 아픔을 오히려 극대화 시킨다. 그럴 경우 화자는 그 아픔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고 이로써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눈물은 정화작용을 한다. 따라서 맘껏 아파하고 때론 눈물도 흘림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스스로 깊은 고통을 경험한 화자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호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이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 한 이후, 더 이상은 내려갈 곳이 없어진 이후는 오히려 상승의 기운을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시조 창작을 통해 스스로를 더한 고통의 국면으로 내몰고, 이로써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자각 하며 화자는 상승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

둘째 단계는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강호에서 생활하며 현실과 이상의 격차를 줄이고 그것의 조화를 추구해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일련의 작품들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이나 현실을 긍정하는 단계이다. ④에서 ⑦에 이르는 작품은

24)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등장하는 '카타르시스'에 대한 구절의 해석을 두고 상이한 두 가지 이론이 거론된다. 이는 동일한 구절을 두고 '①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비극은 이들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 ②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을 통해서 비극은 이러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성취한다'고 달리 번역하는 데서 비롯된다. 정화이론은 이 가운데 ①에 근거하는 것으로, '이들 감정'은 보기 딱하고 끔찍한 연민과 공포를 가리킨다고 본다. 정화이론에서는 카타르시스는 연민이나 공포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들 감정을 몰아냄으로써 성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화하기 위해서는 격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 강조되는 데 곧, 동류요법을 통해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유종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증보판 4쇄), 민음사, 1995. pp.272-276 참조).

각각 <도산십이곡> 1연과 2연, <한거십팔곡>의 8연과 <울리유곡>의 2연이다. 이들은 강호의 삶을 노래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화자(작자)가 강호에 머물게 된 동기는 서로 같지 않다. 그런 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강호가 지니는 의미 또한 차별성을 띠게 된다.

즉 <도산십이곡>에서의 강호가 은퇴의 공간이라면 <한거십팔곡>에서는 평소 화자가 지향하던 공간이다. <울리유곡>에서는 삭직으로 인하여 강호를 선택한 것이니, <한거십팔곡> 보다는 <도산십이곡>에 좀더 근접하다. 이처럼 강호에 머물게 되는 동기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화자들이 그곳의 삶에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현실과 이상에서의 갈등에서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인 만큼 첫 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의 정서는 야기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자의 심리가 아직 완벽하게 평온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만큼 표면적으로는 심리적 갈등이 완전히 제거된 듯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sup>25)</sup>

첫 단계가 동류요법을 통한 정화이론에 근거한다면 둘째 단계는 조정이론에 근거한다.<sup>26)</sup> 조정이론에 따르면 감정이나 걱정은 적절하게

25) 둘째 단계에서 구가되는 즐거움이 아직은 표피적일 수 있는 근거를 퇴계의 <도산십이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도산십이곡>은 12수로 이루어진 연시조 작품이다. 따라서 1연에서 12연까지 어떤 계기성에 의하여 순차적인 구성을 하게 된다. 그런데 <도산십이곡>의 1연과 2연에서 은거를 선택한 즐거움을 노래했던 것과는 달리 3연과 함께 4연에서는 오히려 곁선 지향을 보이며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26) 이는 각주 24)에서 언급한 카타르시스에 ②번의 해석에 근거한다. ②에서는 '이러한 감정'은 연민이나 공포 자체뿐만 아니라 적절히 순화되고 조정되지 못할 경우 유해할 수도 있는 감정의 영역 전반이 된다. 이 경우, 감정은 그 자체로서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적절히 제어되지 못했을 경우만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나 걱정은 적절히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연민이나 공포는 제어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지 몰아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이다(유종호, 앞의 책).

통제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연민이나 공포, 즉 출처를 두고 갈등하고 거기에서 수반되는 불안 심리나 고통 등도 유익할 수 있게 된다.<sup>27)</sup> 말하자면 화자가 완벽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추구해가는 과정을 노래함으로써 화자의 심리 또한 거기에 동조하여 실제적인 안정에 이르게끔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단계는 평온과 무심을 구가하는 마음을 노래함으로써 시조가 문학치료로서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하다. 작품 ⑧의 화자가 웃음으로 일관한다든지, ⑨에서 가어웅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은 삶의 너그러움과 흥취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는 갈등하는 마음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⑩과 ⑪에서는 은현이나 현우(賢愚)의 구분을 두지 않음으로써, 경계를 초월한 도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는 갈등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만큼 출처의 의미 또한 무의미할 뿐이다. 다시 말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현실이 곧 이상이고 이상이 곧 현실인 지경이다. 그런 만큼 첫 단계에서 화자를 불안과 우울로 내몰던 갈등의 요소는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화자의 모습이 과정의 결말, 즉 완치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문학의 치료적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봄이 더욱 마땅하다. 셋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치료적 효과는 카타르시스의 또 다른 해석인 명징이론<sup>28)</sup>과 유사할 수 있다. 이전 단계에서 이

27) 이것은 드라마와 연극치료에서의 '미적거리감'과 유사하다. 정화이론이 '감정이 입'에서 비롯된다면 드라마나 연극치료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거리'개념에 근거한다. 즉 연극은 본질적으로 '지금-여기'의 현재성과 현존성을 강조하게 되는 데, 비극을 연기하거나 관람함으로써 공포나 불안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박미리, 「연극 교육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집, 국어교육학회, 2003, pp.232-234).

28)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으로, 관련 어구를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의 묘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건의 명징화를 성

상과 현실의 격차로 말미암아 야기되던 갈등과 그로 인한 불안정한 마음이 정화되고 조정됨으로써 화자의 심리상태는 이제 명징해지고 이렇듯 명료한 마음은 그 자체로써 화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조그만 외부적 자극으로도 심각하게 흔들리던 화자였지만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화자의 심리는 안정을 넘어 명징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흥취마저도 느낀다. 겸선도 독선도 문제가 되지 않고 출도 없고 처도 없고,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 단계에 이름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삶을 즐거워 할 수 있는 득도의 단계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다음 단계는 먼저 단계보다 화자의 감정이 성숙해지고 치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만큼 치료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누구에게나 이 과정이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첫째 유형과 둘째 유형의 차서가 절대적으로 수의적인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서는 처음 단계에서 멈추어 다음 과정으로의 전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단 기일 안에 첫 단계에서 벗어나 다음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다. 인간의 심리란 어느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출처의 갈등’과 ‘은거의 선택’의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야 셋째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결과는 그 추출된 모습을 유형화 하고 이것을 대상으로 서로 간의 선후 관계를 상정하였을 때 얻게 되는 결과이다. 즉 나중 단계는 앞선 단계보다 그만큼 정서적이고 안정

---

취한다”고 보는 것이다(유중호, 앞의 책). 비록 소수파에 의해 주장되고 있으나, 사건의 명료함을 통해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는 이 해석은 평온과 무심을 구가하는 셋째 단계에서 거두게 되는 문학치료의 효과와 일치할 수 있다.

된 심리 상태로 보다 성숙한 단계가 된다.<sup>29)</sup>

#### 4. 맺음말

문학을 치료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어색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의 몸과 마음 중에서 치료의 대상을 종종 신체로 국한시켜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신체의 병이 가시적인데 반해 마음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러한 정황 탓에 마음의 병은 질병으로서의 인식조차도 미미한 게 사실이다. 문학 치료는 이러한 마음의 병을 질병으로 인식할 때 일차적으로 그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의 병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문학의 치료적 기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문학의 치료 기능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대상이 필요하다. 이 대상은 문학 치료를 받게 되는 치료 대상자와 치료의 이용되는 문학 텍스트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시조의 문학 치료적 기능을 고찰하기 위하여 16·17세기의 강호시조를 그 텍스트로 삼았다. 이 시기의 강호시조는 시조의 문학

---

29) 이러한 심리의 발전 단계는 게슈탈트 이론(Gestalt Theory)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게슈탈트 이론의 '동가성의 원칙', '간결성의 법칙', '충전·보정의 법칙', '폐합의 원리'에 근거한다. 요컨대 인간이 어떤 불안 심리나 갈등의 요소가 있으면 그것의 평정을 피하고, 단순화 하고 부족하거나 불안정한 것은 보충하거나 바로잡으려는 심리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인간에게 어떤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일차적으로는 그것이 전면에 드러난다. 그러면 인간은 앞에서 예시한 원리들에 근거하여 그것을 배경화 하려는 심리가 있게 되고, 이내 그것을 배경으로 후치시키고, 대신에 다른 어떤 일들을 다시 전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피하고자 한다(김경희, 『게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2000. pp.143-145).

치료적 기능을 고찰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지닌다. 우선은 16·17세기의 강호시조는 일반적으로 강호에 머물며 생기게 되는 출처의 갈등을 주로 노래한다는 점인데, 이는 그만큼 치료의 명분이 뚜렷함을 의미한다. 작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의 아픔을 시조로 노래한다는 것은 곧 시조의 효용적 가치를 긍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sup>30)</sup>

다음은 이들이 연시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의 진행에 따라 변화되는 작자의 감정 추이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각의 작품이 문학 치료로서 어떻게 기능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들이 궁극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거두어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는가 하는, 치료의 효과까지도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예컨대 권호문의 〈한겨십팔곡〉은 처음에는 출처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지만 작품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은거를 선택하고 지향하여, 나아가 강호에서의 즐거움을 구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강호에 머물며 독선기신 하든, 세상에 나아가 겸선천하 하든, 16·17세기 강호시조의 작자 계층인 사람과 문인들의 최종 목표는 도의 실현이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자체적으로 강한 치료의 의지를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곳에서 갈등을 하든지 도를 실현해야 한다는, 치료의 관점에서 본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한다는 치료 의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이다. 치료의 의지가 강한 만큼 그 효과 또한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 실제로도 셋째 단계에서는

30) 이는 『악장가사』 소재 〈어부가〉가 시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향유됐던 것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어부가〉의 주변 인물들이 대략 30-40대 후반에 이르는 중년으로, 그것을 부르던 사람들 또한 중년의 위기감과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부가〉를 향유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미정, 「악장가사소재 '어부가'의 문학치료적 효과」(『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pp.157-181) 참조.



안정된 심리 상태를 보임으로써 그것의 치료효과를 입증하기도 한다.

문학치료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만큼 그것에 대한 연구 또한 아직은 미미한 단계이다. 또한 연구의 시작이 문학이 아닌 심리학에서 비롯되어 초기의 연구에서는 문학이 도구적으로 사용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작품에 대한 세심한 천착이 없이 대강의 내용만을 파악한 채 실천에 적용하고 있어서 문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만족스런 부분도 있다. 문학치료라고 하는 것이 문학과 의학, 혹은 심리학의 결합인 만큼 그 출발이 어느 쪽이 되던지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문학'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에 이용되는 문학텍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그 후에 이것을 치료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최근에는 문학 일각에서 이러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어서 문학 치료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sup>31)</sup>

문학치료의 영역은 크게 감상치료와 창작치료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본고는 이미 제작된 작품을 대상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화자, 즉 작자의 심리를 파악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두 가지 영역 가운데 어느 하나에 귀속시킨다면 아마 창작치료 쪽에 좀더 가깝다. 그러나 창작치료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인 창작을 의미하게 되는 만큼 본고는 그에 대한 검증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문학치료의 연구가 초기단계인 만큼 아직 충분한 토대가 형성되지

31)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운채,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문학과 치료, 2006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에는 「한국고전문학과 문학치료」, 「고전시가론에 대한 문학치료적 조명」, 「고전문학 교육과 문학치료」 등 문학치료에 관한 16편의 개별 연구가 수록되어 있다. 그 밖에도 강미정의 「악장가사 소재 '어부가'의 문학치료적 효과」(『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와 『조선왕조실록의 간통사건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문학과 치료, 2005.) 하은하, 『귀신 이야기와 문학치료』(문학과 치료, 2005.) 등이 있다. 특히 시조의 문학 치료에 대한 논의로는 김상진,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효과」(『한국언어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12)가 있다.

않았다.<sup>32)</sup>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할 때, 기왕의 작품을 토대로 거기에 나타난 문학치료의 효과를 검토하여 보는 것은 향후 시조의 문학치료의 타당성 여부 및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오히려 시사적이다. 작자는 작품의 창작자인 동시에 최초의 독자이기도 하다. 요컨대 작자의 창작 심리에 초점을 맞출 때는 창작치료로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며, 독자로서의 작자를 파악한다면 감상치료의 효과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의는 보다 실제적인 시조의 문학치료학이 확립하는데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문학치료, 혹은 문학치료학이 아직은 실험적이고 또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본 연구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완성도 있는 연구로 채우고자 한다.<sup>33)</sup>

#### <참고문헌>

『孟子』

『沙邨集』

『退溪集』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 상하, 아세아문화사, 1992.

강미정, 「악장가사소재 ‘어부가’의 문학치료적 효과」, 『국어교육』 10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0. pp.157-181.

\_\_\_\_\_, 『조선왕조실록의 간통사건에 대한 문학치료적 접근』, 문학과 치료, 2005.

---

32) 문학치료가 지니는 현재의 한계로 말미암아 임상 결과를 축출해 별만큼 많은 검증을 하지는 않았으나, 심리적 갈등을 겪거나 평서 정서가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본고의 대상이 되는 시조를 읽도록 권유하였다. 그 결과한 결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심리적 안정감을 피할 수 있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33) 한편 본고는 시조의 실용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 만큼 논문에 인용된 작품들은 출처의 갈등이나 화자의 심리 변화를 첨예하게 드러내면서도, 또 읽기에 비교적 수월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했음을 밝혀둔다.

- pp.1-313.
- 김경희, 『계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2000. pp.143-145.
- 김기현, 『김광옥론』, 『속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pp.192-210.
- 김상진, 『김득연의 〈산중잡곡〉 재조명』, 『한국시가연구』 16집, 한국시가학회, 2004. pp.192-194.
- \_\_\_\_\_, 『기녀시조에 나타난 문학 치료적 효과-그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언어 문화』 28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5. pp.63-87.
- \_\_\_\_\_, 『16·17세기 시조의 동향과 경향』, 국학자료원, 2006. pp.133-144.
- 박미리, 『연극 교육의 치료 효과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8집, 국어교육학회, 2003. pp.232-234.
- 박연호, 『17세기 강호시조의 한 양상-김광옥을 대상으로』, 『한국어문교육』 7,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회, 1994. pp.115-135.
- 변학수, 『문학치료와 문학적 경험』, 『독일어문학』 10, 한국독일어문학회, 1999. pp.267-300.
- \_\_\_\_\_, 『치료로서의 문학-독서행위와 치료적 전략』, 『독일어문학』 17, 한국독일어 문학회, 2002. pp.47-60.
- \_\_\_\_\_, 『문학치료』, 학지사, 2005. pp.1-483.
- \_\_\_\_\_, 『통합적 문학치료』, 학지사, 2006. pp.1-311.
- 송정현, 『갈봉선생유묵고』, 『충북대 논문집』 10, 충북대학교, 1976. pp.1-30.
- 유중호, 『문학이란 무엇인가』(증보판 4쇄), 민음사, 1995. pp.272-276.
- 이상원, 『김광옥의 율리유평 연구』, 『어문논집』 38, 민족어문학회, 1998. pp.98-99.
- \_\_\_\_\_, 『17세기 시가사의 구도』, 월인, 2000. pp.19-33.
- 임기중, 『장경세론』, 『속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90. pp.152-153.
- 정요일, 『퇴계문학론』, 『퇴계학연구』 4집,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1990. p.12
- 정운채, 『시화에 나타난 문학의 치료적 효과와 문학 치료학을 위한 전망』, 『고전문학과 교육』 1집, 청관고전문학회, 1999. pp.165-187.
- \_\_\_\_\_, 『선화공주형 인물이 등장하는 고전시가의 윤리적 문제의식과 그 심리치료적 의의』, 『문학과 교육』 8호, 문학과교육연구회, 1999. pp.333-355.
- \_\_\_\_\_, 『‘만복사저포기’의 문학치료적 독해』, 『고전문학과 교육』 2집, 청관고전문학회, 2000. pp.209-227.
- \_\_\_\_\_, 『‘무왕설화’와 ‘서동요’의 주역적 해석과 문학치료의 구조화』, 『국어교육』 27집, 2001. pp.215-233.
- \_\_\_\_\_, 『‘홍보가’의 구조적 특성과 문학치료적 효용』, 『고전문학과 교육』 4집, 청관고전문학회, pp.31-45.

- \_\_\_\_\_, 「고전시가론에 대한 문학치료적 조명」, 『한국시가연구』 10집, 한국고전시가학회, 2002, pp.333-338.
- \_\_\_\_\_,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 치료, 2006, pp.1-436.
- 최규수, 「권섭 시조에 나타난 웃음의 문학적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시가연구』 15집, 한국시가학회, 2004, pp.229-254.
- 최재남, 『사람의 향촌 생활과 시가문학』, 국학자료원, 1997, pp.309-318.
- 하은하, 「귀신 이야기와 문학치료」, 문학과 치료, 2005, pp.1-410.
- 한국철학회편, 『한국철학사』 중, 동명사, 1987, pp.1-386.
- Nicholas Mazza(김현희 의 공역), 『시치료-이론과 실제』, 학지사, 2005, p.38.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therapy effects of Sijo\*

- Focused on the 16th-17th century Gangho Sijo -

Kim, sang-jean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therapy effects of Korea's oldest form of literature, *Sijo*, and its role in the future of literatherapy. Since literature is the expression of human emotions, and therapy is related to medicine, the two seem to have little in common, but they share the function of resolving conflicts. The effectiveness of literatherapy has only recently become a matter of discussion. However, literatherapy is greatly involved with the utility value of literature, and should be taken seriously.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literatherapy function of the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 (KRF-2004-043-A00064).

16th-17th century *Gangho-Sijo*. *Gangho-Sijo* was created by literary men from the *Sarim-school*, who were removed from their posts in the government due to a massacre(*Sawha*) and rianly(*Dangjaing*), and spent most of their time away from politics. Their *Sijo* were mostly about life in retreat, and their mental state at that time. In relation to literatherapy, the mentality and attitudes of these scholar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first is anxiety and depression, the second tranquility and harmony, and the third serenity. At the final stage, the scholars are liberated from worldly desires.

Each of these phases hold the effect of literatherapy. The first stage can relate to 'theory of purgation', ISO-Prinzip, which is based on 'like cures like' which means to treat something with its own kind. Fight fire with fire. The second step involves 'theory of purification', and by balancing his emotions, the scholar can achieve mental stability. In the final stage, literatherapy is acquired when the scholar expresses his emotions in a clarification(theory of clarification). At this phase, literatherapy finally has an effect, while the phase itself functions as literatherapy as well.

The study of literatherapy is still at its early stages, thus has many limitations. However, literatherapy has bright prospects, and it is my hope that this repor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for its further research.

**Keywords** : literatherapy, sijo, conflicts, 16th-17th century, Gangho-Sijo, anxiety and depression, tranquility and harmony, serenity, theory of purgation, ISO-Prinzip, theory of purification,

54 시조학논총 26집

theory of clarification

논문투고일 : 2006년 11월 30일, 심사일 : 38일, 심사완료일 : 2007년 1월 7일